보도자료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보 도 자 료	
배 포 일	2022. 7. 27.	학교(기관)명	삼계중학교
홍보담당관실 (공보담당)	전화) 278-1791~4	학교(기관)장	공효순 (230-7730)
	팩스) 278-1789	담 당 자(사서)	김유미 (230-2764)

삼계중학교, 여름방학 인문 독서토론 캠프(7.21~7.22)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토론하다!

홍세화 작가 '세계시민성에 관하여' 초청 좌담회

창원 내서읍 소재 삼계중학교(교장 공효순) 학생 40여명은 방학을 맞아 21일~22일 이틀간 학교도서관에서 인문 독서토론 캠프를 가졌다. 인문 독서동아리 학생들은 올해의 토론 주제 '지속가능한 세계의 시민이 된다는 것' 에 관한 책들을 지난 3월부터 월 1회씩 학년별 모둠으로 관련 책을 읽고 토론을 해왔다.

여름방학 첫째 날 토론캠프의 쟁점은 '자국민의 식량주권(안보) 필요한가?' 로 찬·반 토론을 했다. '세계화' 의 문제를 짚어보고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 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미래식량 등 대안을 위해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각 조별 대항으로 발표하고 논쟁하는 시간을 가졌다.

3학년 이승아 학생은 첫날 토론 후기에서 "우리 사회의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사회과 과목에서 개념과 구체적 상황을 연관시키기가 힘들었던 수동적 암기학습과 쟁점 토론 준비과정에서 자신의 문해력 부족으로 관련 정보에 대한 깊은 이해 및 논거를 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점에서 캠프 참가목적은 달성했다" 라고 말한다.

홍세화 작가 초청 특강 및 좌담회 <세계시민성에 관하여>

둘째 날은 장발장 은행장이며 책 읽는 모임 <소박한 자유인> 대표인 홍세화 작가의 특강 '세계시민성에 관하여' 라는 주제로 강연과 좌담회로 이어졌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사랑, 자유, 노동을 꼽으며, '나' 라는 인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생각하다' 는 과정을 통해 생각하는 사람 = 열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학교 교육에서 이러한 토론문화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작가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에서의 공화국의 어원과 민주공화국의 공공성과 공익, 민주시민의 '자율성' 에 대해 강조하였다.

"자율성을 가진 학생 시민은 교실에서 졸거나 잠들지 않는다. 고객이 아니므로! 자율성은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는 힘이며 민주시민의 덕목으로 자율성, 비판성, 연대성을 꼽는다"

세계시민성의 요건으로 인종적 편견에서 벗어날 것, 성차별주의에서 벗어날 것, 성소수자 차별, 혐오, 억압, 배제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며, 생떽쥐베리의 말로
"이 땅은 우리가 우리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서 빌린 것이다."
난민, 이주노동자들과의 문화들이 이 땅에서 서로 만나 비벼지는 것이 오히려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이 되지 않을까? 실제 주인인 우리 자손은 이주노동자들의 후예를 제외시키라고 요구할까?

기후 위기에서 기후 정의로

위기의 시대, 가장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우리의 생활양식의 소유에서 관계로, 성장에서 성숙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로 강의를 마쳤다.

3학년 김성현 학생은 사회의 약자 보호를 표방하는 단체의 폭력(장애인 지하철 농성, 대우조선 파업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작가는
알베르 까뮈의 '사회적 불의 보다는 무질서를 택한다' 는 말과
"구조 속에 있을 때 구조적 폭력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구조적 폭력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고 답했다.

3학년 김주영 학생은 작가의 글 쓰는 습관과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글 쓰는 일을 하실 것 인지 물었으며, 홍세화 작가는 글 쓰는 일을 놓지는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3학년 강언우 학생은 여름방학 캠프 후기에서 평소 책으로만 알고 있던 희미한 생각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 여러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나서, 자신의 생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한다.

삼계중학교 인문 독서동아리 학생들과 책 읽고 토론하는 교사모임 회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여름방학 캠프 일정을 마무리 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삼계중학교 전담 사서 김유미(☎230-2764)